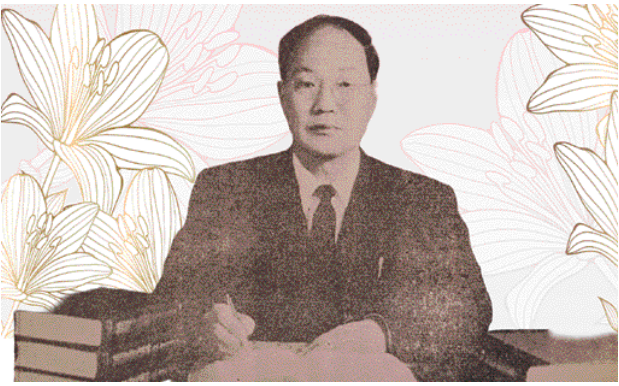


〈영암 김응조 목사 평전〉 편찬의 필요성

성결교회가 오늘의 신학적 전통과 교단적 정체성을 형성해 오는 과정에서 영암 김응조 목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다. 그는 단순히 한 시대를 대표한 목회자가 아니라, 한국 성결교회의 신학, 목회, 교육, 부흥운동, 그리고 교단 형성에 깊이 관여한 핵심 인물이었다. 따라서 김응조 목사에 대한 평전은 개인 전기를 넘어, 교단의 역사와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학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김응조 목사는 한국 근현대 교회사 속에서 성결교회의 신앙 유산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목회 현장에서 복음 전도와 부흥 사역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신학교육과 신학 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성결대학교가 그 역사적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성결교회의 교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도적 위치를 감당하였으며, 이러한 공헌은 오늘날의 성결교회가 그를 교단의 주요 신앙의 사표로 기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특히 김응조 목사의 삶과 사상은 단순한 인물사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신학적 업적과 목회적 실천은 성결교회의 신앙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는 사중복음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며 한국교회 안에서 성결교회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나아가 그는 재림신앙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각성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환기시킨 그의 설교와 저술은,



당시 한국교회가 신앙의 현실성과 경건성을 다시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그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는 작업은 곧 성결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일과 직결된다.

아울러 김응조 목사는 조창기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자신의 가정집을 학교 학사로 내어주는 헌신을 감당하였다. 이는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교단의 미래를 위해 자기 삶의 공간까지 내어놓은 실천적 신앙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헌신은 성결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었으며, 교단 교육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성결교회가 안정된 신학교육 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김응조 목사는 수많은 신학 서적을 저술함으로써 한국교회에 학문적 유산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저술은 단순한 개인적 기록이 아니라, 성결교회의 신학을 정리하고 후학들에게 전승한 지적 자산이었다. 목회자의 현장성과 신학자의 학문성이 함께 결합된 그의 작업은 한국교회사 속에서 보기 드문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응조 목사의 평전은 이러한 사상적·실천적·학문적 업적을 통전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응조 목사 평전은 교단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 성결교신학교 1기생을 포함한 증언자들이 계속해서 자료 수집과 구술 채록이 가능하다. 인물연구에서 생전 증언은 매우 중요한 1차 자료가 되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관련 기억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작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을 높이고 후대의 연구 기반을 마련하

는 일이다.

또한 평전 편찬은 교단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김응조 목사의 생애와 헌신을 알리는 교육적 의미도 가진다. 신앙의 선배를 기억하는 일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교회의 자기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후학들이 선대 신앙인의 삶을 통해 배울 때, 교단의 신학과 목회는 보다 깊은 역사 의식 위에 세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김응조 목사 평전은 교단의 과거를 정리하는 문헌인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신학적 유산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영암 김응조 목사 평전〉의 편찬은 성결교회가 자기 역사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신학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그의 생애, 사상, 헌신, 그리고 교육과 저술의 열매는 교단의 역사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리되고 해석되어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기획과 연구, 그리고 증언 채록이 병행될 때, 김응조 목사의 신앙 유산은 한국교회 안에서 더욱 선풍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김상식 목사
전 성결대 총장
본지 논설위원

조일구 목사, 광주경찰청경목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취임 “경찰과 경목간 연합해 ‘경찰선교’에 주력”



광주경찰청경목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수) 순복음반백성교회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광주경찰청경목연합회는 6월 24일 신임회장 조일구 목사는 “이미 제17

대 회장을 역임했음에도 다시 한번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은,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더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다”라며, “경찰 선교에도 더 힘을 쓰라고 이 중책을 맡겨주신 것 같다. 어찌면 제게 주신 마지막 사명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엄숙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했다.

이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

야 41장 10절)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한 해 동안 선후배 동역자님들의 지도와 도움을 받들어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확고한 다짐을 밝혔다.

광주경찰청경목연합회는 광주경찰청에서 경찰 선교와 경찰관들의 신앙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목회자들의 연합체로 주요활동으로는 경찰관을 위한 예배 및 신앙 상담, 경찰 관련 기념예배와 위문 활동, 순직·공상 경찰관 및 유가족 위로, 경찰 조직과 지역 교회의 협력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 칼럼

조성구 원장
한사랑병원



자외선이 강하고 고온 다습한 여름에는 세균·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이 번식하고 활동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눈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바이러스성 결막염

수영장·위터파크 수영장 물을 소독하면 약품 때문에 따가움·이물감 등 각결막염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보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으로 인해 세균·바이러스 등 미생물이 번식해 감염이 되기도 한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유행성 각결막염, 인두결막염, 에테르바이

가 짧고 병이 빨리 진행됐다가 사라지는데 대부분 1~2주 내에 좋아진다.

결막염을 예방하려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손을 자주 씻고, 가급적 눈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콘택트렌즈를 끼면 감염 위험이 높기에 물놀이할 때는 되도록 렌즈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 광각막염

여름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여름 휴가지인 바닷가나 수영장에서 물이나 모래 같은 표면에 자외선이 많이 반사되고 한꺼번에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눈도 피부처럼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충혈, 눈물 흘림, 통증,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나는 광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자외선은 안구 표면뿐만 아니라 수정체·망막도 도달할 수 있고, 몇 년에 걸쳐 자외선에 노출되면 눈 노화를 촉

여름철 눈 질환 3가지

로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 눈병)의 3가지로 구분된다.

흔히 눈병이라고 알려진 유행성 각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해 환자 눈 분비물의 직접 접촉이나 수영장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처음에는 주로 한쪽 눈 충혈, 눈곱, 눈꺼풀 부종, 눈물 흘림, 이물감 등이 나타나고 며칠 뒤 반대편 눈에도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된다. 심하면 결막에 가성막이 생기고, 각막에 상처가 생겨 심하게 아플 수 있다. 각막 혼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결막염이 호전돼도 각막 혼탁으로 인해 시력 저하나 눈부심이 생길 수 있다.

증상 발현 후 2주 정도 전염력이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가족과 눈 분비물이 닿을 수 있는 수건·비누 등을 따로 쓰고, 눈을 만지지 않는 등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두결막염은 결막염과 함께 인후염, 발열, 림프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 유행성 각결막염과 비슷한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에는 증상이 심각하지만 2주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진다.

‘아폴로 눈병’은 엔테로바이러스나 콕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이물감·충혈 등 일반적인 결막염 증상 외에 결막하출혈이 생길 수 있다. 잠복기

진해 다양한 눈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모자·양산을 사용하는 게 좋다. 선글라스는 색깔과 관계없이 자외선 차단율이 99% 이상인지 확인하고, 렌즈 크기가 클수록 보호되는 면적이 크므로 렌즈 크기가 큰 안경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하는 게 좋다.

◇에어컨으로 악화되는 안구건조증

실내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안구건조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불안정해 눈물이 많이 증발하면서 눈 표면이 손상돼 눈 시림, 타는 듯한 작열감, 이물감, 콧물 찌르는 통증, 뻑뻑함,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독서·TV 시청·컴퓨터 작업·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등을 하면 눈을 깜박이는 횟수가 줄어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건조증으로 인해 많이 불편해진다. 더운 날씨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습도가 낮아져 안구건조증이 악화될 때가 많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해 습도를 조절하는 게 좋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눈물을 증발시키는 선풍기·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아야 한다. 인공눈물을 낮에 관리하면 도움이 된다.

2026학년도 후기 신입 및 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및 수업 연한

목회전공(M.Div.)

지원 자격

목회전공, 선교전공

- 가.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신학교졸업(예정)자
- 나. 대학졸업과 동등하다고 본원이 인정하는 자
- 다. 편입생은 전적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 라. 세례(침례)교인으로 사명감이 있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전형 일정

가. 원서교부 : 2026년 7월 1일(월)부터
2026년 8월 21일(금)까지
문의전화 ☎ 02-725-9964, 9965)

나. 원서교부처 : 성결교신대원 교학과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kts.or.kr)

다. 접수기간 : 2026년 7월 1일(월)부터 2026년 8월 21일(금) 17:00까지

라. 원서접수처 : 성결교신대원 교학과 ☎ 02-725-9964, 9965)

마.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바. 면접 및 전형 일시 : 2026년 8월 25일(월) 오후 1시

사. 합격자 발표 : 2026년 8월 26일(화) 오전 11시

아. 등록기간 : 2026년 8월 26일(화)부터 2026년 8월 28일(금)까지

자. 사이버학과는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서류와 현장 면접을 통해 사이버학과 진행 여부 결정.

전형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 서류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나. 이력서 1통
- 다. 대학 및 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통
- 라. 대학 및 신학교 성적증명서 1통
- 마. 추천서(소정양식) 1통
- 바. 편입생은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통

원서대 및 전형료

- 가. 원서대 : 없음
- 나. 전형료 : 50,000원



성결교신대원
SUNGKYUL THEOLOGICAL SEMINARY

